

간호사복의 착의실태에 관한 연구

이 미 경 · 이 정 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부산대학교 노인생활연구소⁺

Survey on Actual Conditions of Nurses Uniforms

Mi Kyung Lee · Jeong Ra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4. 7. 15, 심사(수정)일: 2014. 8. 22, 게재확정일: 2014. 10. 22)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sign of current nurse uniforms, investigate the state of nurse uniforms, and uniform design preferences in order to ultimately develop functional nurse uniform, which satisfy their needs.

First, observing photos of nurses' campaign on wearing a badge showed that opening of top uniform almost always incorporated buttons, and sleeves were mostly set-in half sleeves while collars tended to be mandarin collars. The colors were mostly white for both top and bottom, while the top showed a bit more variety in colors. White tops often incorporated hospital logos on them.

Second, in terms of the nurse uniform distribution, each nurse is given one top and one bottom per year. In addition, either a cardigan or a jacket on top of the regular summer uniform constitutes the winter uniform, whereas the availability of cardigans differed by hospitals.

Third, the main source of contamination of uniforms was blood,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all low in terms of the design, function, and material of the uniform, calling for the enhancement and development of new uniforms. Design preferences were two-piece with pants, color preferences were blue and pink, and pattern preferences were hospital logo, stripes, and check patterns in the listed order of preference. Complaints were usually made on the contamination of front pocket of the top, lack of sufficient pockets for storage, and tightness of the sleeves. Some preferences on finishing were the princess seams, mandarin collar, set-in half sleeves, and button closing on top. The preferred belt was a mixed form of straight-lined belt and rubber belt, and straight lined hem and spandex blended fabrics were favored for the clothing.

Key words: actual wearing condition(착의실태), functional design(기능적 디자인), medical clothing(의료복), nurses uniforms(간호사복)

본 논문은 석사 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Jeong Ran Lee, e-mail: ljrj@pusan.ac.kr

I. 서론

의료시설의 증가, 의료관광의 확대 등 간호대상자의 다양화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세분화되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게 되었으며¹⁾, 간호사복도 이러한 변화를 표현하고, 병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심미성과 상징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²⁾ 최근에는 사람들의 수명 연장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높은 의료수혜를 요구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환자들과 접하는 의료인의 전문화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병원복은 전문 직업인의 복장으로서 단정하고 활동적이며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하고 진료 및 간호활동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복장의 중요성이 다른 직종보다 강조된다.³⁾ 그 중 환자와 많은 접촉을 하는 간호사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간호사복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⁴⁾ 또한 간호사복은 업무 특성상 오염에 쉽게 노출되므로 세탁이 쉽고 세탁 방법이 간단해야 하며, 건조와 구김에 강한 스트레치 소재 등 관리가 수월해야 한다.⁵⁾ 서울대병원 노조는 간호사복 세탁에 대해 지속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반병동 근무 중 환자의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간호사복에 묻는 경우의 원내 감염과 이를 세탁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는 것에 따른 2차 오염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⁶⁾

간호사복은 1965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복장에 대한 규범”을 제정한 이래 그 형태가 변화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오다 1980년대 후반 병원의 H.I.P (Hospital Identity Program)의 목적으로 간호사복의 변화가 본격화되었으며, 간호사들이 썼던 캡이 사라지고 스커트가 실용성 위주의 바지형태로 개편되었다.⁷⁾ 최근에는 여러 병원에서 차별화된 병원 이미지 구축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간호사복 패션쇼를 개최하여 개선된 근무복을 선보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0년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함께 ‘간호사의 자긍심 휘장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간호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간호전문직 이미지를 차별화시키는 방법으로 날개를 편 비둘기 모양의 휘장을 유니폼 가슴 위치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각 병원은 상징성과 소속감을 담은 심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간호사복을 병원 이미지 개발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병원 의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간호사복에 대한 연구는 유니폼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10년간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간호사복의 디자인 현황과 착의실태 및 선호도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의료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간호사복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병원의 간호사복 디자인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간호사복의 제공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셋째, 부산광역시 소재의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병동 간호사복의 제공 및 관리, 착의실태와 선호 디자인 및 간호사복 기능성 향상을 위한 요구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기능성과 디자인 측면에서 제시한다.

II. 간호업무와 간호복의 변천

1. 병동간호 업무내용

병동간호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사들의 업무는 대개 간호대기 공간(Nurse station)인 간호사실의 사무적인 일과 병실 부근에서의 간호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간호업무, 간접간호업무, 행정사무업무, 전달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⁸⁾ 직접간호업무는 순회 및 면담, 병실을 주 공간으로 환자상태 파악을 위해 체온, 맥박 등 활력증상을 측정하고 검사, 처치, 투약과 주사 등 환자를 직접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간접간호업무는 근무교대 시의 회의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인수인계하고 의사의 처치에 대한 준비와 투약 등을 기록, 관리, 보관한다. 또한 병동 내의 활동전반에 대한 감독과 생활보조, 정리정돈, 간호준비 등을 시행한다. 행정사무업무는 주로 관리자급인 수간호사의 책임간호로 이루어지며, 각종 서류 작성과 보호자들의 병실 안내,

사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접수 보고하며 대부분 간호사실에서 이루어진다. 전달업무는 위의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타부서를 대상으로 연락, 이동이 이루어지고 소모 물품을 배분한다.⁹⁾

간호업무는 대인 서비스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 환자이송, 무거운 물품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과 같은 업무가 많아 간호사복의 형태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2. 간호사복의 변천

간호사가 처음부터 간호사복을 착용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간호사복의 유래를 살펴보면, 1500년대 프랑스의 St. Vincent De Paul의 자선 수녀 단에서 회색 모직물 의복에 하늘색 앞치마를 입었다.¹⁰⁾ <표 1>¹¹⁾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년 최초의 한국인 간호원회가 결성되었는데 한복을 변형하여 청색의 저고리에 흰색 깃을 댄 간호복 상의와 긴치마를 착용하였고, 1920년대의 간호복은 칼라가 부착된 블라우스에 발목 길이로 짧아진 치마를 착용하고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간호사 캡을 착용하였다. 1930년대에는 1920년대와 비슷하게 원피스 스타일로 기장은 무릎과 발목의 중간으로 짧아졌으며, 소매는 긴소매 또는 7부 소매였다. 1940년대 간호사복에서는 A-라인 스커트에 반소매, 1950년대는 4년제 간호학과가 생기면서 A-라인 스커트에 지금까지 간호사이미지로 정형화되어 있는 흰색 원피스에 검은 띠를 넣은 캡을 착용하였다.¹²⁾ 1960년대는 A-라인의 플레어스커트에 길이가 무릎 바로 아래까지 짧아졌다. 또한, 1980년대 초반까지 흰색의 원피스에 카디건을 입었고, 칼라에서는 컨버터블칼라와 아웃포켓, 소매의 길이는 짧아지고 스커트의 스타일은 계속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호사복은 계속 발전하여 1990년대 이후 복장의 탈 규범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며, 간호 의료 분야와 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간호사복은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 졌다. 또한 캡이 사라지고 바지 착용이 증가하였다.

대한간호협회는 2003년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의 목적으로 패션쇼를 통해 국내 첫 항균소재의 각종

<표 1> 국내 간호사복의 변천



유니폼, 간호복, 휘장 및 신발류 등을 인증했다. 이 패션쇼에서는 전문직 의상에 필요한 기능성과 실용성을 갖췄으며, 간호사를 상징하는 '휘장'을 개발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자신의 유니폼에 부착하도록 했다.¹³⁾ 최근에는 각 병원의 상징성과 소속감을 담은 심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간호사복을 더욱 요구하고 있고, 여러 병원에서는 패션쇼를 통해 개선된 근무복을 선보이고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국내병원의 간호사복 디자인 현황

대상 및 기간: 대한간호협회의 휘장 달기 캠페인(2010년 1월~2011년 12월) 홈페이지¹⁴⁾ 사진을 통해 간호사복 디자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종합병원과 병원 100곳의 사진 자료 중 분석이 가능한 90곳을 선정하였다.

분석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¹⁵⁾¹⁶⁾를 참고하여 지역별로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구분하고 병동 수간호사와 일반간호사 복장을 형태, 색상, 무늬 등 21개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심볼 마크, 로고를 사용하는 38개 병원에 대해서는 그 사용부위와 형태적 특성, 조합 형태, 색상을 조사하였다. 병원구분 및 자료의 검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검색서비스¹⁷⁾와 대한병원협회¹⁸⁾ 및 각 병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문항별로 빈도 및 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며,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간호사복의 제공 및 관리실태

대상 및 기간: 조사를 위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종합병원 4곳과 대학병원 1곳을 직접 방문하였다. 간호사복 제공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간호부 소속 관리자와 간호사(수간호사와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내용 및 방법: 수간호사와 일반 간호사복의 형태, 지급현황, 세탁방법, 소재, 병원 로고 사용에

대한 문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간호사복 착의실태 및 선호도

대상 및 기간: 조사기간은 위와 동일하며,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150부를 배포하여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134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 134부 중 문항에 따라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다수 응답 수에 차이가 있다.

분석내용 및 방법: 설문은 선행연구¹⁹⁾²⁰⁾²¹⁾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내용은 인구통계학적 사항, 간호사복의 사용기간, 세탁주기, 오염의 원인과 부위, 중요요소 및 만족도, 선호하는 디자인, 맞춤새, 업무에 따른 불편사항이며, 별도의 불편부위와 개선점에 대해서는 직접기재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1. 간호사복 디자인 분석

휘장 달기 캠페인 홈페이지 사진을 통해 90개 병원의 간호사복 디자인을 분석하였으며 서울, 경기, 부산, 경남지역의 병원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사진을 통해 간호사복의 특징을 형태, 구성요소, 색상과 무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형태

수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복장 형태는 82%가 구분되는 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 10%는 같은 형태에 색상과 칼라모양에서 차별을 두고 있었다. 일반간호사복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하의는 100% 바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수간호사는 바지(54%)와 스커트(46%)를 선택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간호사는 행정업무가 많으므로 기능성을 고려한

바지를 선택이 필수적이지는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구성요소

수간호사는 재킷을 착용하는데 테일러드 칼라(71.9%)와 V형의 카디건 재킷(28.1%)으로 구분되었다. 테일러드 재킷 속 상의칼라는 둥근 네크라인(50.9%)과 차이나칼라(10.5%)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간호사의 상의는 앞여밈(71.1%)에 단추를 사용하였으며, 랩(20%) 형태의 왼쪽 옆 여밈과 앞 중심 지퍼(2.2%) 여밈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칼라 모양에서는 차이나칼라(41.7%), 밴드칼라(22.6%), 피터팬칼라(13.1%), 스테인 칼라(9.5%), 솔칼라(7.2%), 기타(5.9%) 순으로 나타났다. 단추를 사용한 중앙 앞 여밈에 칼라의 형태는 차이나칼라, 피터팬 칼라, 스테인 칼라 순이었으며, 옆 여밈에는 밴드칼라, 솔칼라 순서였다. 소매의 구성은 셋인(100%) 소매이며, 길이는 반소매(94.4%)가 일반적이고, 일부 롤 업 가능한 7부 소매를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색상 및 무늬

일반간호사복의 색상은 흰색(75.6%)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는 베이지, 핑크, 파란색, 초록색, 붉은색

이었다. 상의 색상은 흰색(35.6%), 핑크(20%), 무지개 색(10%), 파란색(8.9%), 노란색(7.8%), 초록색 계열(6.7%) 순으로 나타났다. 흰색(35.6%)의 간호사복 상의에는 병원마크사용이 가장 많았고, 핑크 상의는 무늬가 없으며, 무지개 색상은 스트라이프 무늬가 많았다. 상의 전체로는 몸판에 무늬 없음이(47.7%)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트라이프무늬(20.5%), 병원마크(15.9%), 꽃무늬(6.8%), 추상무늬(5.7%)의 순이었다.

38곳 병원의 심볼 마크 사용부위는 왼쪽소매(50%), 상의 전체(36.8%), 상의 왼쪽가슴(13.2%) 순이며 심볼 마크의 조형적 유형은 구상적(44.7%), 추상적(42.1%), 혼합형(13.2%)으로 구성되었다. 마크의 색상은 혼합색(60.5%)이 많았고, 단색(39.5%)은 파란색, 초록색 순이었으며, 심볼 조합의 형태는 문자+이미지 혼합형(60.5%)이 가장 많았고 캐릭터를 포함한 이미지(36.8%) 형태와 이니셜을 포함한 문자(2.6%) 형태로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지형태 중 십자가를 포함한 비율은 전체 31.6%로 분석되었다.

김선희, 류은정의 연구²²⁾에 나타난 간호사복 디자인 현황을 보면 바지 투피스형이 58.7%에 불과하였고, 상의는 프린세스라인, 요크 디자인이 많았으며,

<표 2> 일반병동 간호사복의 제공 실태

병원	지급 현황	스타일		칼라	소재	색상	몸판 문양	병원 로고	바지 허리	세탁
		하복	동복							
A	· 입사 시 2벌 지급 · 매년 원하는 것으로 1벌 지급	반소매 상의+바지	긴소매 티셔츠 추가	V넥크	폴리에스테르 합성	상/하의 보라색	없음/줄무늬	왼쪽 소매	일자벨트	개인
B	· 입사 시 1벌 지급, 추후 매년 지급 · 재킷 또는 카디건은 필요시 지급	7부 소매 상의+바지	카디건 추가	차이나칼라	폴리에스테르 합성	상의 무지개 색, 하의 흰색	줄무늬	없음		
C	· 입사 시 상의/하의/카디건 지급, · 매년 지급	반소매 상의+바지	카디건 추가	차이나칼라	폴리에스테르	상/하의 흰색	병원 로고	몸판		
D	· 입사 시 1벌 지급 다음 해 카디건 지급 · 2년에 한벌지급	반소매 상의+바지	카디건 추가	피터팬칼라	폴리에스테르	상/하의 흰색	꽃무늬	없음		
E	· 입사 시 1벌 지급, 추후 매년 지급 · 재킷 또는 카디건은 3년마다 지급	반소매 상의+바지	재킷 추가	스테인칼라	폴리에스테르 합성	상의 핑크색, 하의 흰색	없음	왼쪽 소매		

칼라는 컨버터블 칼라가 가장 많아 최근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흰 색상이 많고 100% 폴리에스터 또는 면과 폴리에스터의 혼방사용은 차이가 없었다.

2. 간호사복의 제공 실태

본 연구 조사대상 5곳의 일반병동 간호사복 제공 실태를 살펴보면 왼쪽 가슴에 휘장을 부착하여 간호조무사와 구분하고 있었으며, 휘장달기 캠페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병동 내에서는 수간호사와 직위를 구분해주는 다른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일반간호사는 하의로 기본형의 바지를 100% 착용하고 있었고, 수간호사는 50% 이상이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표 2〉에서 간호사복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매년 1벌의 상·하의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입사 시에 2벌을 지급하는 곳, 2년에 한 벌을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 일반병동 간호사의 하복은 반소매 상의와 바지를 착용하고 동복으로는 카디건 또는 재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카디건 지급은 병원마다 그 기준이 달랐다. 색상은 하의는 대부분 흰색을 착용하고 상의는 흰색, 보라색, 핑크색, 무지개색

등 다양하였다. 소재는 조사대상 병원 모두 신축성이 없는 폴리에스터를 주 소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3. 간호사복의 착의실태 및 선호도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00%, 3교대 근무였으며 나이는 20대가 약 59%를 차지했다. 근무병동은 외과계병동이 44.8%, 내과계 병동 30.6%, 기타병동 24.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병동에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이 있었다. 근무경력은 5년 이하인 경우가 53%였고 근무병원의 형태는 종합병원이 78.4%였다.

2) 간호사복의 관리실태

보유 중인 간호사복 한 벌의 사용기간은 〈표 4〉와 같으며, 2년 이상이 38.1%로 가장 많았다. 세탁 주기는 4~5일이 40.3%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 번이 38.8%였다. 간호사복을 2년 동안 사용하면서 4~5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한다고 해도 최소 150번 이상의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N=134)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나이	20세 이상~25세 미만	37	27.6
	25세 이상~30세 미만	42	31.3
	30세 이상~40세 미만	46	34.3
	40세 이상	9	6.7
근무병동	내과계 병동	41	30.6
	외과계 병동	60	44.8
	기타 병동	33	24.6
근무경력	1년 미만	15	11.2
	1~3년	37	27.6
	3~5년	19	14.2
	5~10년	40	29.9
	10년 이상	23	17.2
근무병원	종합병원	105	78.4
	대학 부속병원	29	21.6

세탁을 하게 되므로 소재의 선택 시 세탁내구성이 매우 중요한 성능임을 알 수 있다.

근무 시 의복에 대한 오염 원인을 복수응답 하도록 하여 분석한 결과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환자 혈액이었고, 다음으로 펜, 약제, 링거액 등의 순서였다. 혈액에 의한 오염이 많다는 것은 혈액을 통한 감염우려가 높으므로 항균성을 가진 기능성 간호사복이 필요한 이유이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르면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피' 등 오염된 세탁물로, 반드시 자격 있는 의료기관과 처리업자에 의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하여 세탁해야 한다.²³⁾ 그러나 간호사복과

같은 개인의복은 오염이 되었더라도 모두 스스로 세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된 오염부위에 대해서는 배와 앞주머니가 76.1%로 제일 높았고, 허벅지, 바지밑단 순으로 오염빈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3) 간호사복 역할의 중요성

의복은 그 역할에 따라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간호사복은 간호업무에 필요한 기능성과 심미성 및 업무 상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5> 이에 대한 중요성을 질문한 결과, 일반병동 간호사들은 업무 중 복장의 아름다움, 상징성보다는 업무 효율을 고려한 기능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기능성요인에서는 활동성

<표 4> 간호사복 관리실태

(N=134)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한 벌 사용기간	1년 미만	24	17.9
	1년~1년 6개월 미만	32	23.9
	1년 6개월~2년 미만	26	19.4
	2년 이상	51	38.1
	기타	1	0.7
오염원인 (다중응답)	혈액	106	79.1
	펜	91	67.9
	약제	64	47.8
	링거액	58	43.3
	음식물	29	21.6
	기타	1	0.7
세탁 주기	2~3일마다	52	38.8
	4~5일마다	54	40.3
	1주일마다	21	15.7
	1주일~2주일마다	3	2.2
	기타	4	3.0
오염원인 (다중응답)	혈액	106	79.1
	펜	91	67.9
	약제	64	47.8
	링거액	58	43.3
	음식물	29	21.6
	기타	1	0.7

〈표 5〉 간호사복 주요 역할차원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역할차원 (N=134)	기능성	115	85.8
	심미성	13	9.7
	상징성	6	4.5
기능성 (N=134)	활동성	109	81.3
	소재	17	12.7
	세탁	4	3.0
	수납	3	2.2
	기타	1	0.7
심미성 (N=133)	형태	66	49.3
	색상	61	45.5
	무늬	4	3.0
	기타	2	1.5
상징성 (N=133)	간호사 이미지	68	50.7
	소속감	41	30.6
	차별성	22	16.4
	기타	2	1.5

이 81.3%로 가장 높았고, 심미성 즉 디자인요인에서는 형태(49.3%)가, 상징성요인에서는 간호사이미지가 50.7%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빈도를 나타낸 간호사복 형태, 활동성,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복 개발 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요소이다.

또한 조사대상자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디자인요인에서 20대는 색상을, 30대 이상은 형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징성에서는 20대는 간호사이미지가 잘 나타나야한다고 하였고, 30대는 간호사이미지와 함께 소속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항목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연령에서 기

능성과 활동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복의 만족도를 이 영역별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4점 만점에 상징성 2.48, 심미성 2.60, 기능성 2.44이었으며 평균적으로는 2.52로 중간수준의 만족감을 보였다고 하였다. 가장 높은 평가는 심미성 영역의 '시각적으로 피곤하지 않다'였고, 가장 낮은 평가는 '세련되고 멋있다'로 나타났다.²⁴⁾

4) 간호사복 만족도

〈표 6〉은 착용 중인 간호사복의 세탁 및 관리, 수납, 디자인, 소재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

〈표 6〉 간호사복 만족도

(N=134)

항목	평균	표준편차
세탁 및 관리 손질이 편리하다	2.86 (0.85)	0.85
물품수납이 쉽다	2.78 (0.70)	0.70
개성이 잘 드러난 디자인이다	2.49 (0.78)	0.78
소재가 잘 오염되지 않고 흡수성, 신축성이 뛰어나다	2.33 (0.87)	0.87

하였다. 조사결과 평균 2.33~2.86점으로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이 중 세탁과 관리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간호사복 폴리에스터 소재가 많아 구김이 잘 가지 않고 세탁이 간단하며 건조가 빨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 흡수성이 좋지 않고 오염이 잘 되며, 신축성이 부족하여 위생 및 활동성에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물품 수납이나 디자인 측면에서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간호활동 시 불편업무 및 동작

착용한 간호사복으로 인해 불편한 업무를 순서대로 3개 직접 기재하도록 한 결과 <표 7>과 같이 침상정리, 자세 바꾸기, 주사제 준비 및 투여 순으로 나타났으며, 침상정리, 자세 바꾸기는 80% 내외의 간호사들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상체의 큰 동작을 수반하여 등과 소매 쪽의 활동성이 원

활해야 하나 현재의 간호사복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은 복장으로 인해 불편했던 동작을 조사한 결과로 팔 동작과 쪼그려 앉는 동작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팔 동작에서 소매 당김이 있어 불편하다는 문항은 그렇다 이상이 50%를 넘었고, 쪼그려 앉는 동작에서는 하의 불편이 그렇다 이상이 49%에 달하였다. 쪼그려 앉을 때 허리가 보여 불편하다는 46% 정도였다. 이는 상의 패턴에서는 상의길이를 길게 하고, 하의 패턴 설계 시 뒤 벨트의 착용감에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벨트 폭을 넓게 하고 기능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 간호사복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표 9>는 구체적인 불만족 사항과 착용 중인 간호사복의 개선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한 응답자가 두 가지 이상의 불만 사항을

<표 7> 복장으로 인해 불편한 업무

(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침상정리	110	84.0
자세 바꾸기	103	78.6
주사제 준비 및 투여	62	47.3
v/s 체크 및 병실순회	56	42.7
혈당검사 및 섭취량/배설량 확인	31	23.7
기타	26	19.8

<표 8> 복장으로 인해 불편한 동작

(N=134)

동작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N(%)	N(%)	N(%)	N(%)
상체 숙임	허리보임	7(5.2)	32(23.9)	44(32.8)	43(32.1)	8(6.0)
	속옷·가슴보임	12(9.0)	48(35.8)	35(26.1)	30(22.4)	9(6.7)
팔 동작	소매 당김 불편	6(4.5)	23(17.2)	37(27.6)	55(41.0)	13(9.7)
	팔뚝 조임 불편	7(5.2)	38(28.4)	44(32.8)	36(26.9)	9(6.7)
쪼그려 앉음	하의 불편	3(2.2)	29(21.6)	37(27.6)	46(34.6)	19(14.2)
	허리 보임 불편	5(3.7)	33(24.6)	34(25.4)	49(36.6)	13(9.7)

〈표 9〉 간호사복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구분	항목	
문제점	오염물에 의한 착색 등으로 세탁 불량(땀, 불펜 등)	
	맞음새 불만(정확한 치수측정필요, 활동 시 노출 걱정)	
	얇은 원단손상(주머니구멍 등)과 세탁 시 봉탈, 지퍼고장	
요구사항	소재	신축성 (활동성이 불편, 특히 바지에 필요함)
		흡수성과 통기성 (땀 흡수되는 면 소재 필요)
	편의성	허리벨트를 고무벨트로 교체
		부족한 수납공간 보완
		앞치마 필요 (혈액, 분비물로 인한 오염)
	디자인	외형적으로 예쁜 옷
간호의 전문성이 반영된 의복		

기술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업무 시 허리, 가슴 등 노출부위로 인한 불편이 많았고 소재에 대해서 세탁관리와 신축성, 흡수성, 통기성에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 외 소재의 강도 보완, 부족한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와 디자인에 대한 개선도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간호사복 디자인 선호도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선호도는 〈표 10〉과 같으며 형태적으로는 바지 투피스선호가 94.8%로 가장 높았

〈표 10〉 간호사복 디자인 선호도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아이템 (N=134)	상의와 바지	127	94.8
	원피스	5	3.7
	상의와 스커트	2	1.5
색상 (N=132)	파란색	48	36.4
	분홍색	36	27.3
	노란색	18	13.6
	흰색	17	12.9
	기타	13	9.9
상하의 소재구분 (N=134)	상/하 구분	90	67.2
	상/하 통일	44	32.8
무늬 (N=123)	병원마크	43	35.0
	줄 또는 체크무늬	38	28.4
	무늬 없음	33	26.8
	꽃무늬	7	5.7
	기타	2	1.6
소재 (N=134)	면 혼방 + 스판덱스	79	59.0
	면 혼방	33	24.6
	100% 면	22	16.4

다. 색상은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흰색의 순이었다. 간호사의 근무 부서나 나이에 따른 색상 선호도의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에서 파란

색을 가장 선호하였다. 간호사복의 상·하의 구분에 대한 질문에서는 상·하 구분되기를 원하는 응답이 67.2%로 높았으며, 무늬에서는 병원마크(35.0%)를

〈표 11〉 상하의 디테일 선호도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실루엣 (N=132)	프린세스라인	72	54.5
	모래시계형	38	28.8
	박스형	15	11.4
	A라인형	7	5.3
상의 길이 (N=127)	허리선과 엉덩이선 사이	82	64.6
	엉덩이선	38	29.9
	엉덩이선 아래	7	5.5
칼라형태 (N=134)	차이나 칼라	41	30.6
	솔 칼라	29	21.6
	칼라리스	20	14.9
	피터팬 칼라	19	14.2
	스테인칼라	13	9.7
	리본 칼라	12	9.0
칼라리스 선택 시 넥크라인 (N=20)	라운드 넥크라인	11	55.0
	브이 넥크라인	6	30.0
	기타	3	15
소매 길이 (N= 133)	반소매	102	76.7
	7부소매	21	15.8
	긴소매	10	7.5
소매 형태 (N=133)	셋인 소매	106	79.7
	래글런 소매	15	11.3
	기타	12	9.1
여밈 방법 (N=133)	단추 여밈	102	76.7
	지퍼 여밈	28	21.1
	기타	3	2.3
여밈 위치 (N=132)	단추5- 중심 여밈	65	49.2
	단추2- 왼쪽 옆 어깨 여밈	26	19.7
	단추5- 왼쪽 옆 여밈	19	14.4
	단추1 - 왼쪽 옆 여밈	17	12.9
	단추1 - 중심 여밈	5	3.8
주머니 (N=131)	2개	112	85.5
	3개 이상	17	13.0
	기타	2	1.6
허리벨트 (N=132)	일자벨트 + 고무벨트	71	53.8
	전체 고무벨트	44	33.3
	일반 일자벨트	15	11.4
	기타	2	1.5
밑단 형태 (N=134)	일자형	87	64.9
	좁아지는 형	45	33.6
	나팔 형	2	1.5

가장 선호하였고, 줄 또는 체크무늬 28.4%, 무늬 없음 26.8%, 꽃무늬 5.7%, 기타 1.6%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에서는 면 혼방+스판텍스 59%, 면+폴리에스터 24.6%, 면 100% 16.4%로 나타나 신축성 있는 소재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표 11〉은 상하의 디자인 디테일 선호도를 그림으로 제시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각 항목별로 보면, 상의 실루엣은 프린세스라인(54.5%)을, 상의길이는 허리선과 엉덩이선 사이길이(64.6%)를 가장 선호하였다. 칼라형태는 차이나 칼라 30.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솔칼라, 칼라가 없는 것, 피터팬 칼라 순으로 나타났으며, 칼라리스 선택 시 네크라인은 라운드(55%)를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소매의 형태는 셋인 반소매 선호가 월등히 높았고, 여밈 방법은 단추 여밈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조사되었다. 여밈의 위치는 단추 5개의 앞 중심 여밈으로 나타났다. 주머니는 2개를 선호하였다. 하의 디자인 선호도에서는 50% 이상이 허리에 일자벨트+고무벨트 혼합형을 선호하였고, 바지는 일자형이 64.9%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국내병원 간호사복의 디자인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8) 간호사복 개선을 위한 요구조사

〈표 12〉는 일반병동 간호사복의 개선을 위하여 소재와 수납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이다. 소재에 대해서는 신축성소재에 평균 4.25점, 감염예방소재 사용에 평균 4.36점으로 높은 요구를 나타내어 업무현장에서의 활동성 부족과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적 소재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상의 앞주머니 불편 사항에서는 수납이 요구되었으나, 수납에 관련한 탈부착주머니와 수납이 가능한 색(Sack)형태의

벨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선희²⁵⁾의 중앙공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같은 용도의 벨트색(Belt-sack)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와는 다른데 이는 본 연구대상인 일반병동 간호사는 잦은 환자이송, 무거운 물품취급 등이 많아 색(Sack)형태의 벨트가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9) 일반 병동 간호사복 개선 방안

이상에서와 같은 간호사복 착의실태 및 간호사들이 제시한 개선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간호사복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 기능성 측면

① 활동성

현재 착용하고 있는 간호사복은 업무동작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고 이에 따라 허리, 가슴 노출 및 소매와 등의 당김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등과 진동둘레에 액션플리츠(Action pleats)를 만들어 동작기능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액션플리츠는 팔을 들어 올릴 때, 주름이 퍼졌다가 팔을 내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 소매 당김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등에는 맞주름을 줌으로써 활동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수납

전반적으로 수납공간이 부족한 실태이며, 업무 시 휴대물품으로 인하여 상의 주머니가 파손되기 쉬운 데 특히 펜과 가위로 인한 구멍과 찢기구에 의한 오염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의 앞 포켓에 작은 칸을 구분하여 업무 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볼펜과 가위와 같은 물품이 잘 빠지지 않

〈표 12〉 기능성 향상을 위한 요구조사

(N=134)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축성 소재	4.25	0.79
감염예방소재	4.36	0.77
탈부착 주머니	2.64	1.13
수납이 가능한 색(Sack)형태의 벨트	2.70	1.17

게 하고, 특히 펜에 의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머니 안쪽에 방수되는 천을 사용한다. 가위 고리를 장착하여 움직임 고정함으로써 상체를 숙여야 하는 침상 간호 때 주머니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③ 소재

현재 대부분의 간호사복은 혈액이나 다양한 오염원에 노출되어있으며 자가 세탁을 하고 있어 간호사와 면회인 등 2차 감염위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폴리에스터 합성소재가 아닌 항균성 소재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며 세탁 주기가 짧음으로 내구성과 세탁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디자인 측면

① 실루엣 및 색상

간호사복의 형태는 반팔 소매의 상의와 긴 바지로 하되 상의길이를 길게 하고 바지 벨트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주고, 고무 밴드를 같이 사용하면 착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색상은 조사결과 선호가 많았던 파란색, 분홍색상을 중심으로 문양을 적용하여 변화가 있도록 한다.

② 직물

상의는 스트라이프 등의 문양을 적용하고, 하의는 스판덱스 혼방된 소재로 하되 상의와 같은 색상의 무늬가 없는 소재를 선택하여 색상의 통일감을 준다. 간호사의 소속감이나 전문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직물문양이 개발된다면 보다 만족도가 향상된 의료복을 기대할 수 있다.

V. 결론

간호사복은 착용자로 하여금 소속감을 나타내며,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하고 간호활동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간호사들이 착용하고 있는 간호사복 디자인을 분석하고,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

호사복의 착의 실태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와 간호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사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휘장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90개 병원의 사진 자료로 살펴본 결과, 간호사 직위에 따라 구분되는 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일반간호사의 상의 여밈은 앞 중심에 단추 사용이 가장 많았고, 소매의 구성은 셋 인의 반소매가 일반적이며, 칼라는 차이나 칼라였다. 색상은 상·하의 모두 흰색이 가장 많았으며, 상의는 50% 이상에서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고 있었다. 상의는 무늬 없는 것이 가장 많았고, 흰색 상의에는 병원마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간호사복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매년 한 벌의 상·하의를 지급받으며, 동복은 하복 위에 카디건 또는 재킷을 착용하고, 카디건 지급은 병원마다 그 기준이 달랐다. 소재는 조사대상 모두 폴리에스터를 주 소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간호사복 착의실태조사에서 오염의 주원인은 혈액이었고, 만족도는 디자인, 소재, 관리, 수납 모든 항목에서 다소 낮아 간호사복에 대한 보완과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호사복의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기능적 측면에서는 등과 진동둘레에 맞추름과 액션플리츠로 업무 시 활동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수납공간을 늘리고, 상의 앞 포켓은 칸을 구분하여 업무 시 사용하는 물품이 잘 빠지지 않게 하며, 주머니 안쪽에 방수 천을 사용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또한 소재에서는 항균성과 내구성, 세탁성이 우수한 소재를 선정하고, 하의는 스판덱스 혼방 소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착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반팔 소매의 상의와 긴 바지로 하되 업무 시 편의를 위해 상의길이를 길게 하고 고무 밴드와 결합된 넓은 벨트를 적용한다. 색상은 파란색, 분홍색상을 중심으로 스트라이프 등의 문양을 적용하여 변화를 주고, 하의는 상의와 같은 색상의 무늬가 없는 소재를 선택하여 색상의 통일감을 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기능성과 간호사들의 선호디자인을

반영한 일반병동 간호사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창의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안창현 (2006), 노인병원 간호 유니폼 디자인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
- 2) 김선희, 류은정 (2002), 간호사복의 치수적합성과 디자인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8), pp. 183-190.
- 3) 강정민, 하지수 (2007), 병원복을 위한 UFC(Ubiquitous Fashionable Computer)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 31(5), pp. 717-728.
- 4) 이희승, 김재숙 (2006), 의복 음양, 명암 및 직업 상징성을 중심으로 한 간호사복의 범주화, *복식문화연구*, 12(3), pp. 379-391.
- 5) 최정화 외 (2010), *헬스케어의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178-182.
- 6) "서울대병원노조 간호복 세탁요구", 자료검색일 2011. 9. 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476769>
- 7) 김용덕 (2004), 종합병원의 간호사복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2-49.
- 8) 황태희 (1997), 간호운영방식을 고려한 병동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3-17.
- 9) 김용덕, *op. cit.*, pp. 19-20.
- 10) 정지숙, 지성애 (2001), 간호사의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적 자기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7(3), pp. 455-472.
- 11) 자료검색일 2012. 3. 17, <http://www.ewhauniform.co.kr/history/start.html>
- 12) 이소우 (2000), 한국간호교육 100년 발달사적 연구(1900-2000),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pp. 303-326.
- 13) "국내 첫 항균소재 간호사복 출시 눈길", 데일리메디, (2003, 5.), 자료검색일 2011. 9. 27,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arch_smode=&skey=%B1%B9%B3%BB+%C3%B9+%C7%D7%B1%D5%BC%D2%C0%E7+%B0%A3%C8%A3%BB%E7%BA%B9&skind=both&stern=uset&ssdate=2002-12-02&sedate=2014-12-02§ion=1&category=8&no=634833
- 14) 대한간호협회- 포토갤러리 '간호사 휘장달기 캠페인', 자료검색일 2011. 7. 15, http://www.koreanurse.or.kr/nurse/nurse__0701.asp
- 15) 강미정 (2003), 간호사 유니폼에 대한 선호도에 따른 패턴 설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16) 현동희, 임승욱 (2001), 병원심볼 마크의 표현 경향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2(1), pp. 75-83.
-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검색서비스, 자료검색일 2011. 8. 20, <http://www.hira.or.kr/rd/hosp/getHospList.do?pgmid=>
- 18)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위치정보시스템, 자료검색일 2011. 8. 05, http://www.hospitalmaps.or.kr/hm/frHospital/hospital_list_state.jsp?&s_mid=020100
- 19) 김용덕, *op. cit.*, pp. 50-51.
- 20) 강미정, *op. cit.*, pp. 39-43.
- 21) 윤희영, 최혜선 (2010), 대학종합병원 전공의 가운 개발에 관한 연구: 수납 및 활동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4(5), pp. 819-830.
- 22) 김선희, 류은정 (2002), 간호사복의 치수적합성과 디자인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9), pp. 183-190.
- 23)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2010), 보건복지부령 제 228호, 자료검색일 2011. 7. 10, <http://www.law.go.kr/lsInfo.do?lsiSeq=149128&efYd=20140101#0000>
- 24) 정지숙, 지성애, *op. cit.*, pp. 461-462.
- 25) 이선화 (2012), 병원 의료진복 및 환자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06.